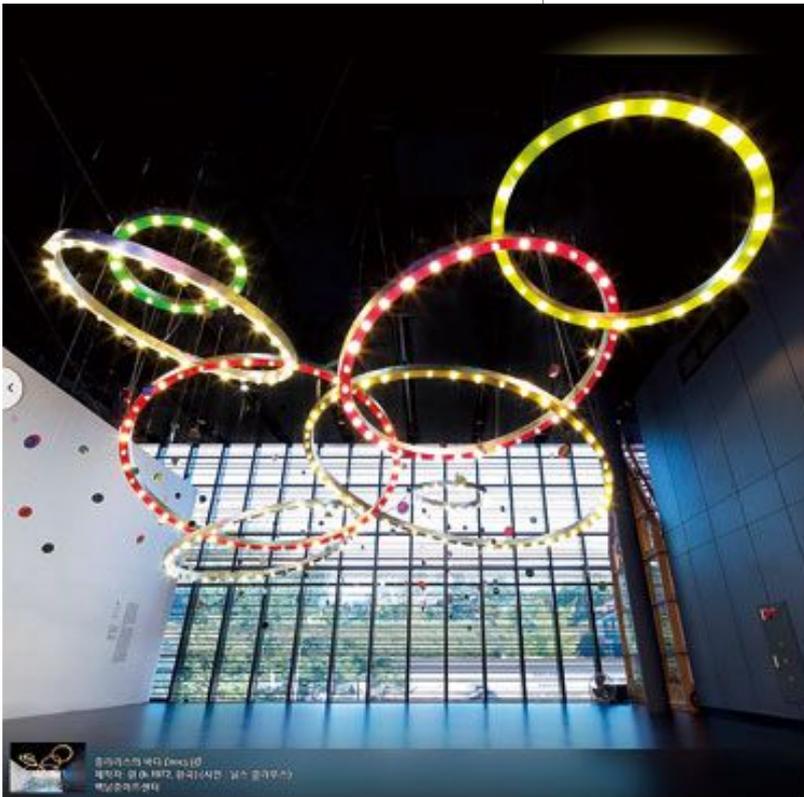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유산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에 선보여

CULTURE

2016 / 06 / 02  
ART IN CULTURE

천 년의 유물과 최첨단 디지털 기술의 만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유산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  
<http://www.google.com/culturalinstitute>)에 선보여



흔은 정현섭과 최문선 2인으로 구성된 미디어 영상 설치 작가로,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문화계가 함께 활동해왔다. 그동안 공적, 공중, 집단적 대한 관심이 반영된 작업을 해오다 2008년 이후부터 대중 참여 경험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 및 상황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신작 <솔라리스\*의 바다>에서는 지난 14년간의 미술계 안에서와 밖의 성숙기에 집중한다. 문화의 상에 근거한 미술계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문화'와 '작업' 주위에 존재했던 환경 (다양한 인적 구성, 각종 기관들을 합쳐와 형성으로 상정화시켜 실제 미술계에서 존재하는 지속적인 파장과 소멸의 과정을 순간의 상태로 포착해 하나의 유기적인 조형요소로 시작한다.

\* 솔라리스(Solaris) 스페이스로 필리핀의 베스페르르 소멸을 다룬 안도르 이 카르포스키의 1972년 SF 영화로, 솔라리스는 아직 거대한 '뇌'처럼 탈락한 일의 대상으로 밀어넣는 희생이다. 기억된 방식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의 자성체를 만들어 내는 '뇌'의 바다의 경계를 뛰어넘는 지구과학자들의 여정을 그린 SF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로 보는 <슈퍼 전파-미디어 바이러스>(백남준아트센터 2015)

2018년, '경기 천 년'이 다가온다. '경기'라는 지명이 1018년 시작된 것을 근거로 경기도가 2018년을 경기도의 '미래 천 년'을 준비하는 해로 만들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이를 기념하여 경기문화재단은 IT기업 구글(Google)과 특별한 협약을 맺었다. 구글은 전 세계의 문화유산과 미술품을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감상하게 하고 후손을 위해 보존하고자 2011년부터 비영리 온라인 전시 사이트인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Google Cultural Institute, [www.google.com/culturalinstitute](http://www.google.com/culturalinstitute))-를 설립했다. 경기문화재단은 2014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재단 산하의 경기도미술관이 국내 미술관 최초로

프로젝트에 참여, <거리의 미술-그래피티 아트>(2014)전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또한 2015년부터는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등 9개 기관으로 협력을 확대하여 30여 건의 '온라인 전시'를 선보였다. 2018년 '경기 천 년'을 맞아 구글은 특별히 프로젝트 페이지 '경기 천 년의 예술과 역사(-g.co/gyeonggiculture)'를 신설했다. 경기도 1천 년의 시간을 대변하고 풍부한 문화자산을 별도로 소개하면서 경기도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 프로젝트의 주요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이미지를 약 70억 픽셀로 확대해 선보이는 '기가픽셀'. 둘째, 박물관 외부 및 내부 모습을 구현한 '스트리트 뷰'. 셋째, 스마트폰이나 VR 기기인 '카드보드 뷰어'를 이용해 세계 명소를 가상현실로 여행할 수 있는 '익스피디션 프로그램'. 특히, 기가픽셀을 이용하면 현존하는 책가도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꼽히는 장한종의 <요지연도>와 <김육 초상> 등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세밀한 부분까지 감상할 수 있다. 재단은 향후 구글과의 협업 결과물을 적극 활용하여 병원 학교 군부대 산업공단 등 문화 소외 지역 도민들이 경기도의 풍부한 문화자산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콘텐츠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